

COME & SEE

2026 BETHEL THEME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엄위하시도다"
(시편 66장 5절)



담임목사: 김한요
Rev. Bryan Kim, Lead Pastor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 www.bkc.org ♦ bethel@bkc.org
Tel: 949.854.4010 ♦ Helpdesk(Text-only): 949-229-1181

교회학교 및 그 외 주일예배 안내



- 영아부(0-1.5세) / 본당 1층 영아부실
9:00AM, 11:00AM
- 유아부(1.5-3세) / 본당 2층 유아부실
9:00AM, 11:00AM
- 유치부(3세-PreK) / 할렐루야채플
9:00AM, 11:00AM
- K-1(킨더가든-1학년) / 임마누엘채플
9:00AM, 11:00AM
- 유년부(2-3학년) / 유년부실
9:00AM, 11:00AM
- 초등부(4-5학년) / 체육관
9:00AM, 11:00AM
- 영어중등부(BYM JHS) / 찬양채플, 비전채플
9:00AM(찬양채플), 11:00AM(비전채플)
- 영어고등부(BYM HS) / 비전채플, 비전센터109호
9:00AM(비전채플), 11:00AM(비전센터109호)
- 한어중고등부(CIM) / 살롬채플
11:00AM
- 소망부(장애인) / 조이채플
9:00AM, 11:00AM
- BETHEL GRACE CHURCH /
베델그레이스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日本語 礼拝 / 살롬채플
9:00AM

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 공중파 TV 방송:
미주 CGN TV 채널 44.9 · 화요일/오후 3시
- 케이블TV 방송 (CTS America):
TV DirecTV 채널 2092 · 공중파 채널 18.8
화요일/오후 6시 45분 · 목요일/오후 12시 30분
- 라디오 방송 (GBC 미주복음방송):
주파수 AM 1190 KHZ · 금요일/오후 1시

주 일 예 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1부 예배 | 7:00AM 2부 예배 | 9:00AM 3부 예배 | 11:00AM 4부(청년) 예배 | 2:00PM

-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Prisider **예배 인도자**
-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 Altogether **다같이**
-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Bethel Worship **베델 워십**
1부/큰 영화로신 주(찬50/새35장)
- 기도 Prayer..... Altogether **다같이**
1부/김재호 집사 2부/김종학 집사 3부/김중현 집사 4부/변은재
- 찬양(1부) Anthem..... Bethel Choir **베델 콰이어**
1부/그 날(Cliff Duren 편곡)
- 영상광고 Media Announcement Media **방송실**
- 유아 세례식(3부) Infant Baptism Noel Song **송노엘**
-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1, 2, 3부/요한복음(John) 2:1-11 Altogether **다같이**
4부/요한복음(John) 7:25-36

말씀 Message 1, 2, 3부.....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너무나 궁금한 예수님 이야기(1) **돌향아리가 거듭나다**

4부Rev. Solomon Kang **강솔로몬 목사**

Solus Christus(26) 신화가 사실이 되다

적용찬양 Song of Response Altogether **다같이**
1, 2, 3부/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결단찬양 및 봉헌 Song of Dedication and Closing Altogether **다같이**
1, 2, 3부/그날(One Day)

*축도 Benediction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ww.bkc.org)

담임목사 칼럼
Lead Pastor's Column

예수님을 모셔오고 싶은 식당

A Restaurant Where I Would Like to Bring Jesus



김한요 목사 / Rev. Bryan Kim

얼마 전 한 식당에 들렀습니다. 가게 앞에는 줄을 서서 기다리는 손님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저는 아무리 맛있는 식당이라도 한 시간씩 줄을 서야 한다면 정중히 사양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식당 앞에 걸려 있는 문구 하나 때문에 기꺼이 기다려 보기로 했습니다. 리셉션에 물어보니 30분 정도면 자리가 난다고 하여 기쁜 마음으로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제 마음을 움직인 글귀는 이것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우리 집을 방문하셨는데 시장하시다면, 나는 주님을 이 식당으로 모셔 오고 싶습니다. - 인디애나에서 사는 주민이' 인디애나에서 식당이 있는 캘리포니아까지 오려면 비행기를 타고 온종일 이동해야 합니다. 머나먼 곳에서 온 여행객이 예수님께 대접하고 싶다고 극찬한 식당이라면, 30분쯤은 충분히 기다릴 가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갔던 '내가 다시 가고 싶은 식당'들이 있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뉴저지의 어느 만두집입니다. 하루에 정해진 양만 판매하는 곳이라 일찍 가지 않으면 맛볼 수 없는 집이었습니다. 겨우 20-30명 남짓 앉을 수 있는 작은 가게였지만, 그 만두 맛은 그야말로 일품이었습니다. 마침 내년엔 그 식당 근처의 교회에서 설교 부탁이 들어왔는데, 그 만두가 생각나 뉴저지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커네티컷의 작은 중국집입니다. 예전에 목회하던 동네에 있던, 주로 포장(To-go)을 전문으로 하는 곳이었습니다. 테이블이 두세 개밖에 없는 좁은 곳이었지만, 신선한 야채와 로메인 국수를 센 불에 볶아 내던 그 맛은 최고였습니다. 바쁜 점심시간에 들러 10분 만에 후딱 먹기에는 그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흥내 낼 수 없는 특별한 소스와 뜨거운 워(Wok)에서 피어오르던 불맛은 여전히 군침을 돌게 합니다. 세 번째는 한국의 어느 냉면집입니다. 병원 검진을 위해 묵었던 숙소 옆에 있어 우연히 들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제법 유명한 맛집이었습니다. 툭툭 끊어지는 면발은 씹으면서도 구수했고, 육수에서는 오랜 시간 들인 정성이 깊게 배어 있었습니다. 국물 마지막 한 방울까지 남기지 않고 비워 낸 냉면은 그 집이 유일합니다.

입으로 맛보는 세상의 음식도 이토록 깊은 기억으로 남는데, 하물며 우리 영혼의 양식은 어떻겠습니까? 성도님들께서도 저마다 기억에 남는 영적인 맛집이 있으실 줄 압니다. 세월이 흘러도 문득 그리워지고, 다시 찾아가 예배드리고 싶은 그런 교회 말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오늘의 예배가 평생토록 기억되는 '가나 혼인 잔치'와 같은 은혜와 기쁨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Not long ago, I stopped by a restaurant. There were a lot of customers waiting in line in front of the establishment. Normally, no matter how delicious a restaurant is, if I must wait in line for an hour, I am the type to politely decline. However, on that day, I willingly decided to wait because of a single phrase hanging in front of the restaurant. When I asked the restaurant receptionists, they said a seat would open up in about 30 minutes, so I happily invested my time. The phrase that moved my heart was this: "If Jesus were to visit our home and was hungry, I would like to bring the Lord to this restaurant. - From a resident living in Indiana." To come from Indiana to California, where this restaurant is located, one must travel all day by plane. I thought that if it was a restaurant so highly praised by a traveler from such a distant place that they wanted to bring Jesus there, it would certainly be worth waiting 30 minutes.

I also took some time to think about if there are any restaurants I have visited so far that fall into my category of 'restaurants I want to visit again.' The first is a dumpling house in New Jersey. Since it is a place that only sells a set amount per day, you wouldn't be able to taste them unless you went early. It was a small shop that could barely seat a little over 20 to 30 people, but the taste of those dumplings was truly a masterpiece. Coincidentally, I received a request to preach at a church near that restaurant next year, so I am planning a visit to the New Jersey church with those dumplings in mind. The second is a small Chinese restaurant in Connecticut. It was a place in a neighborhood where I had my ministry, primarily specializing in takeout (To-go). It was a cramped space with only two or three tables, but the taste of fresh vegetables and lo mein noodles stir-fried over a powerful flame was the absolute best. There was no better place to drop by during a busy lunch hour and eat quickly within 10 minutes. Even now, the special sauce that cannot be replicated and the smoky flavor rising from the hot wok still make my mouth water. The third is a certain naengmyeon (cold noodle) restaurant in Korea. I happened to stop by because it was next to the lodging where I stayed for a medical check-up, and I later found out it was a famous restaurant. The easily breaking noodle strands were mild yet nutty, and the broth was infused with deep flavor that had to be simmered over many hours. That is the only restaurant where I finished the naengmyeon without leaving even a single drop of broth behind.

If worldly food tasted by the mouth leaves such deep memories, how much more so for the food of our souls? I believe that each of our church members has a spiritual hotspot that remains in your memories. I mean a church that suddenly makes you feel nostalgic as time passes, and makes you want to visit and worship there again. I earnestly pray that in the lives of all the church members who visited our church today to worship together, today's worship becomes a place of grace and joy that will be remembered for a lifetime, just like the 'Wedding at Cana.'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설교자: 김한요 목사

돌항아리가 거듭나다

(요한복음 2:1-11)

1. 결혼한지 얼마나 되었나요? 각자의 결혼식에 있었던 재미나는 에피소드가 있으며 나눠주세요.

2. 가나 혼인잔치의 문제는 무엇이었나요? 혹 나에게도 잔치가 끝난 것 같은 위기가 있었나요?(1-3절)

3. 돌항아리의 용도는 무엇이었나요? 지금 나의 비어있는 돌항아리는 무엇일까요?(6절)

4.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의 부탁에 어떻게 답하셨나요? 그 의미를 두 가지로 정리해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4절)

1) 예수님은 ()

엡 5:32

엡 5:24-25

계 21:2

2) 예수님은 ()

사 25:1, 6

마 10:28

5. 하인들과 손님들의 차이는 무엇이였을까요?(9절, 참고/시 34:7, 시 119:18)

시 34:8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 알지어다

시 119:18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을 보게 하소서

■ 적용찬양: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적용하기



사역 소개
선교 소식팀

열방의 소식을 온 교회의 기도 소리로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는 자의 발이 산을 넘는 것이 어찌 그리 아름다 운가" (사 52:7)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받들어 열방을 섬기는 선교소위원회는 위원장으로 섬기시는 황장로님과 함께 산하에 현재 선교소식, 선교행사, 선교 미디어, 선교물품, 선교교육 등 5개의 사역팀이 유기적으로 연합하여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중 '선교소식팀'은 선교 최전선의 생생한 감동과 긴급한 기도 제목을 교회에 알리는 '복된 소식의 전령사'이자, 선교지와 성도들을 기도로 잇는 따뜻한 가교입니다.

저희 선교소식팀은 국내의 선교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서신과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정리합니다. 이렇게 모인 긴박한 기도 제목들을 성도님들과 신속하게 공유함으로써 선교지를 위한 강력한 중보기도의 불씨를 지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척박한 땅에서 피어난 영혼 구원의 열매와 감격스러운 은혜의 간증을 교회 채널을 통해 전달하며 온 교회에 선교적 열정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선교소식팀은 성도님들이 선교를 멀리 있는 특별한 사명이 아니라, 함께 참여하는 교회의 일상적인 사명으로 받아들이도록 돕고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보내오는 한 통의 편지와 한 장의 사진, 작은 기도 제목 하나에도 하나님 의 살아계신 역사가 담겨 있음을 함께 나누며,

성도님들이 선교사님들의 기쁨과 아픔을 함께 품도록 연결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선교의 열매는 선교지에서만 맺히는 것이 아니라, 그 소식을 듣고 함께 기도하며 후원하는 교회의 믿음 위에서도 자라난다는 사실을 늘 경험하고 있습니다.

선교소식팀의 사역은 단순히 현장의 글을 전하는 것을 넘어, 성도님들의 마음을 선교지로 향하게 만드는 소중한 마중물입니다. 선교지의 소식이 교회의 간절한 기도 소리로 울려 퍼질 때, 선교의 문은 더욱 활짝 열릴 것입니다. '보내는 선교사'로서 기도의 자리를 함께 지키는 선교소식팀의 사역에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따뜻한 동역을 부탁드립니다.

손석환 집사

선교 후기
GMMA

정말 놀라운 대회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께, 2026 GMMA 전국 의료선교대회는 800명이 넘는 참석자들과 함께 놀라운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베델교회의 신실한 동역과 수많은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헌신적인 섬김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지치지 않고 봉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번 대회를 위해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가 참으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강사들은 참석자들을 축복하기 위해 오셨지만, 모든 분들의 기쁨과 사랑, 그리고 따뜻한 환대를 통해 큰 은혜와 격려를 받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Ming Wang 박사는 참석자들과 거의 100장의 selfies를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Dan Jones 박사는 이번 대회를 '정말 놀라운(phenomenal) 대회' 라고 표현하며 뜻깊은 만남과 교제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Gilbert Hovsepian은 기회가 된다면 반드시 다시 참석하고 싶다고 했으며, Christina Francis 박사는 열정적인 학생들의 모습에 큰 도전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한 해에도 여러 컨퍼런스에 참가하는 전시 사역 단체들 역시 이번 GMMA 대회가 자신들이 참석한 최고의 컨퍼런스 중 하나였다고 평가했으며, GMMA 특유의 따뜻한 분위기와 섬김 때문에 매년 이 대회를 손꼽아 기다린다고 전해 주었습니다.

GMMA의 비전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선교를 품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베델교회가 함께하도록 이끌어 주신 김한요 담임목사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베델교회 자원봉사자들을 훌륭하게 이끌며 모든 필요를 세심하게 채워 주신 주집사님, 그리고 모든 워크숍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 강의실을 잘 준비하고 운영해 주신 이장로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베델교회의 신실한 동역과 따뜻한 환대,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은 섬김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방을 섬기시는 베델교회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Mary Roh, MD(GMMA 전국 의료선교대회 디렉터)



루디아 셀
총성 목장

말씀으로 함께 성장하는 여성 공동체



우리 교회에는 많은 셀들이 있지만, 여성들만으로 이루어진 셀은 많지 않습니다. 저희 루디아셀은 남편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어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자매들, 남편이 한국에 있어 홀로 교회를 섬기는 자매들 등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가진 여성들이 함께 모이는 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느덧 3년의 시간을 보내며 셀식구가 꾸준히 늘어나 올해는 두 개의 셀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셀이 나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만남과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내 주시며 공동체를 더욱 풍성하게 세워가고 계십니다.

니다. 나눔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열매를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루디아셀은 단순한 친목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함께 성장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매주 주일 설교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에 주시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삶의 기쁨과 어려움, 감사와 기도 제목을 진솔하게 나눕니다.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고 도전하며, 함께 드리는 기도는 지친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됩니다. 혼자였다면 감당하기 어려웠을 시간도 셀식구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부흥회와 음악회, 선교바자, 디아스포라 선교대회 등 교회의 다양한 예배와 행사에도 함께 참여하며 기쁨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섬길 때 교회는 더욱 따뜻한 믿음의 가족이 되고, 공동체 안에서 소속감과 기

쁨도 더욱 깊어집니다. 또한 교회 밖에서도 생일을 함께 축하하고, 함께 견고, 식사를 나누며 집으로 초대해 주는 가정을 오가는 교제를 통해 서로 더욱 친밀해지고 이해하며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셀식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기쁨으로 나누며 서로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작은 섬김 하나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서로를 위한 중보기도를 통해 믿음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루디아셀의 가장 큰 기쁨은 주일 설교 말씀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삶이 변화되고, 함께 드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저희 셀의 가장 큰 감사입니다.

앞으로도 루디아셀이 말씀과 기도 위에 굳게 서서, 서로를 사랑으로 품고 세워 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로 아름답게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소영 권사

예배 간증 베델워십팀

오늘도 우리는 찬양합니다

살롱~! 우리 삶에 참된 평안과 소망, 그리고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제가 베델 워십팀을 섬긴 지도 어느덧 7년이 되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예배의 문이 닫히고 집에서도 마음껏 찬양할 수 없었던 답답한 시간, 저는 차 안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찬양이 너무 하고 싶어요.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고, 저를 마음껏 찬양드릴 수 있는 자리로 불러 주셨습니다.

제 삶 가운데 찬양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찬양의 가사와 멜로디를 통해 제 마음을 만져 주셨고, 제 생각을 새롭게 하셨으며, 제 삶을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찬양의 시간은 제게 숨을 쉴 수 있는 유일한 숨구멍이었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고, 감추지 않은 제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통해 이렇게 부족한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세워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심을,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을 주님께서 인도하셨고 모든 일을 주님께서 이루셨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찬양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감정 때문이 아니라 언제나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와 믿음으로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김명현 집사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의 긴 터널을 지나며 너무 연약해서 넘어지고, 좌절하고, 제 자신에게 실망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냐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울부짖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베델 워십팀의 찬양은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온 우리의 영혼에 새 힘을 주시는 시간입니다.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품어 주시는 시간입니다. 찬양을 통해 주님



교회학교 후기
K-5 VBS

하나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여름



This was my first VBS at Bethel Church, and I had so much fun! It was even more special because I got to serve on the praise team.

My favorite station was the Science Station. We used Orbeez, water, and a figure of Jesus to learn an important lesson. The Orbeez represented distractions like video games and phones, while the water represented God's Word. At first, Jesus was hard to see, but when we poured in the water, He became clear again. This reminded me to keep my heart filled with God's Word.

I'm thankful for all the teachers and teacher assistants who made VBS so meaningful. Their love and hard work helped us grow closer to God. I can't wait for next year's VBS!

Jeremiah Kim(2학년)



저는 올해 VBS에서 정말 즐거운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에 대해 많이 배웠고, 예수님께서 항상 저를 지켜 주시며 어려울 때 도와주신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강사 목사님의 말씀도 재미있어서 더욱 집중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도 새로 사귀고 함께 찬양도 많이 해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선생님들과 함께한 시간도 너무 좋았습니다. 벌써 내년 VBS가 기다려집니다.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최운서(4학년)



VBS is a fun and memorable experience that I look forward to every year at church. Since this was my final year as a VBS student, I wanted to make the most of it, and I had an amazing time. My favorite memory from this year's VBS was when my mom chose me to volunteer during the Science Station. While I will miss participating in the daily activities, games, and crafts, I am grateful for my time as a VBS student and look forward to being a T.A. next year.

Issac Nam(5학년)

안녕하세요! VBS는 정말 즐겁고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이번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를 초대했는데, 친구도 정말 재미있었다고 해서 더욱 기뻐요. Brian 목사님의 설교도 쉽고 재미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저는 찬양팀으로 섬기면서 많이 떨리고 힘들기도 했지만, 찬양을 마치고 나면 뿌듯했고 자신

감도 생겼어요. VBS를 통해 교회에도 잘 적응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어요.

이소을(3학년)



Hi, my name is Norah, and I'm 7 years old. I really liked going to VBS this year. It was so fun!

At the Science Station, it was really cool to make the tornado project. I liked how it showed that sometimes we feel stressed and everything is spinning, but God cleanses us and forgives us. At the Bible Station, we learned about God and made fun crafts. During Service, we sang praises, and I really liked Pastor Brian's message because it was really funny. At the Craft Station, my favorite craft was the little jar with the bird in it. I learned that God always protects us, just like a bird is safe in its nest. At the Game Station, my favorite game was when we were blindfolded and picked up the sheep. Through that activity, I learned that the Shepherd leads us.

I also really liked my crew leaders because they were so nice, and my team was really fun. I loved Nina and Asher. I'm so excited to see them again next year!

윤노라(1학년)

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목회자◎

- 기획/행정/QTin: 조동현 목사
- 소망/선교: 이충경 목사
- 기쁨/찬양/전도: 박경철 목사
- 화평/온유/섬김: 박성권 목사
- 사랑/셀/울림: 조태현 목사
- 충성/Joy/훈련: 서동민 목사
- 은혜/새가족/BCA: 배홍수 목사
- 믿음/예배: 이형석 목사
- BGC 담임: Dan Nam 목사
- BGC(College/Worship): Peter Lee 목사
- BGC(Young Adult): Daniel Yoon 전도사
- 예살채플(총괄): 강솔로몬 목사
- 예살채플: 공병주 목사
- 예살채플: 최요셉 인턴 전도사
- 영어고등부: 김한나(Hanna) 전도사
- 교회학교(총괄)/영어중등부: 현호승(Daniel) 목사
- 영어중등부: 신재민 전도사
- 초등부: 이지원(Cindy) 전도사
- 유년부: 이승진(Sharon) 전도사
- K-1: 정가영(April) 전도사
- 유치부/아기학교: 전소연 전도사
- 유아부: 이경은 전도사
- 영아부: 최미정 전도사
- 소망부: 김재은 전도사
- 환우: 정티나 목사
- Beyond the Blue: 오경희 전도사
- 병원심방: 김현일 협동목사
- 상담: 황성철 협동목사
- 의료상담: 이강민 전도사

◎베델 콰이어 및 찬양팀◎

- 지휘자: 김형직 목사
- 솔리스트: 최정원
- 뮤직디렉터: 정봉화
- 반주자: 한현미, 박정연
- 예살 워십: 조요셉

◎교회 직원 및 간사◎

- 사무장: 조주은
- 건물/차량관리: 김유호
- 사무실: 인현미, 이미옥
- 재정실: 이수민
- 방송실장: 박주남 전도사
- 방송실: 민윤기, 김앤드류(인턴)
- 목회지원/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음향: 최철기
- 컨텐츠 디렉터: 최종형
- 음향: 강창위, 한 진
- 디자인: 박선경
- 웹/IT: 김경아
- 수양관: 오춘란

사역광고

한여름의 시원한 신학강좌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시 36:9) '불확실성의 시대를 조명하다'를 주제로 제10차 한여름의 시원한 신학강좌를 마련하였습니다. 현 시대의 복음 왜곡을 진단하고, 개혁주의 신앙의 본질을 다시 발견하는 특별한 여정! 불확실성과 혼란이 가득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믿고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할까요? 종교적 소비주의와 피상적인 열심을 넘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본질과 개혁주의 신앙의 깊이를 함께 탐구합니다.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들고, 참된 확신과 소망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성경적 통찰과 신앙의 방향을 제시하는 알찬 강의와 함께 다양한 특별순서, 식사와 간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족과 지인을 초청하여 함께하시고, 은혜와 배움이 가득한 뜻깊은 시간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 ▶ **강사: 노진준 목사(순회설교자, Preaching Coaching Ministry)**
박성일 목사(기쁨의교회 담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변증학 겸임교수)
정갑신 목사(예수향남교회 담임목사)
- ▶ **일정: 7월 31일(금) 저녁 7시 30분 - 불확실한 자아(노진준 목사)**
8월 1일(토) 오전 6시 - 불확실한 가정(박성일 목사), 불확실한 관계(정갑신 목사)
토요 패널토의 - 김한요 목사 인도, 강사 3인 패널
8월 2일(주일) 1부 불확실한 교회(노진준 목사), 2부 불확실한 세상(박성일 목사)
3부 불확실한 미래(정갑신 목사)
- ▶ **장소: 베델교회 본당** ▶ 문의: 황인수 집사 (949)307-3557

예배 봉사자

주일예배 대표기도(7,8월)	7/19:	①부-김태현	②부-김병주	③부-박재문	④부-남경인
	7/26:	①부-박상곤	②부-김학남	③부-박호성	④부-이민수
	8/2:	①부-방모세	②부-박영덕	③부-백권기	④부-박세환
헵시바 토요새벽 대표기도(7,8월)	7/18:	유형석	이기호	이요셉	윤현돈
	강단꽃(7,8월)	7/12: 조 룰	7/19: 조형미	7/26: 배사라	8/2: 장석우

[의무실(오전 8:30-오후 1:00)]

이번주 | 의사-탁정호(소아과), 간호사-장한나 다음주 | 의사-이원섭(한의학), 간호사-임희수

선교후원

- [파송선교사] **창의적접근지역** | 손승옥, 김진영, 서반석(이루다), 오감사(오사랑), 장주원(장한나), 이희숙, 장과장(주열매), 호세아(그사랑), Nader(Dina), Yeshua, Reza
- 조지아** | 김현수(고봉주) **캄보디아** | 황순현(황현주), 이석배
- [협력선교사] **기니비사우** | 유요한(유글로리아) **니카라과** | 박우석(이현숙) **이스라엘** | 장이삭(정인나)
- 멕시코 과달라하라** | 허익현(김영중) **몽골** | 을지바트(민애령), Kathy Ribbs **베트남** | 성경(양선) **브라질** | 브레노(에스터)
- 온두라스** | 이동철(이수민) **우간다** | 박민수(이순영) **일본** | 강민숙(변선영) **캄보디아** | 김우정(박정희), 김인성
- 코스타리카** | 금상호(김미경) **탄자니아** | 황광인(황영숙) **태국** | 박상선(신영선)
- 창의적접근지역** | 길예평(길진명), 이상훈 **문화선교** | 공 민(The Bridge), 김도현(나비공방)
- ***선교기관** | 나눔선교회, 밀알선교회, 바실레이아 신학교, 소망 소사이티, 한미가정상담소, Gift of Vision, GMMMA, GP미주본부, AU&W, New Hope 선교 유치원, QTm America, Silk Wave Mission, The Center for BAM(CBAM), 푸른초장의 집
- ***특별선교** | 복음방송(GBC), CTS, CGN TV
- ***문서선교** | 기독교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베델 알림판

Bethel Announcements

◆ 제 10차 한여름의 시원한 신학강좌 '불확실성의 시대를 조명하다'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성경적 통찰과 신앙의 방향을 제시하는 알찬 강의와 더불어 다양한 특별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족과 지인들을 초청하여 함께 참여하셔서 은혜와 배움이 가득한 뜻깊은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특별 순서와 식사, 간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7면 참고)

기간: 7월 31일(금)-8월 2일(주일)

◆ 제 8기 베델기도학교 모집 체계적인 기도훈련을 통해 기도의 영성을 배우고, 베델의 새로운 50년을 열어갈 기도의 용사로 세움받기 원하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교육기간: 8월 첫째 주-11월 첫째 주(총14주)

접수마감: 8월 2일(주일)

교육내용: 8월 6일(목) 개강모임, 조별 기도모임과 책 나눔(12주), 기도 세미나(2회)

등록방법: QR 코드를 스캔하여 신청폼 작성, 혹은 본당 앞 기도팀 부스에서 신청
등록비: 20불(교재 포함)

문의: 이봉운 집사 (714)788-1235, prayer.school@bkc.org



◆ 수요저녁예배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과 뜨거운 찬양으로 한 주의 중심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성도님을 초대합니다.

일시: 7월 15일(수) 저녁 7시 30분

문의: 조광중 집사 (949)706-4168

◆ 소망부 VBS 봉사자 모집 올 여름 소망부 VBS를 섬겨주실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일시: 7월 21일(화)-24일(금) 오전 9시-오후 3시

신청: QR 코드

문의: 김재은 전도사 (949)923-7094, 김종곤 집사 (714)450-0015



◆ 2026-27년도 AWANA 등록 9월 18일부터 AWANA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는 성경 중심의 어린이 제자훈련 프로그램 AWANA에 우리 자녀들을 초대합니다.

프로그램 기간: (가을학기) 9월 18일-11월 20일, (봄학기) 1월 15일-5월 14일

대상: K-5학년

등록 기간: 7월 26일까지(K-5학년 100명 선착순)

등록비: \$65(티셔츠 필요시, 따로 구입 필요)

등록: QR 코드

문의: 이근제 집사 (716)907-118



◆ B2N 서류 및 등록비 제출 실크웨이브 선교회의 B2N 2027 참석자는 여권 사본하고 B2N 등록비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 사본과 등록비를 코트야드 부스나 행정실로 제출해주시고, 현금은 재정실에서만 받고 있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부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이충경 목사 (949)537-6968, 황세현 장로 (949)648-1907

◆ 단기선교팀원 모집 9월 14일(월)-22일(화)까지 있을 베트남 선교팀원을 모집합니다. 한의사와 VBS를 섬겨주실 분들을 찾습니다.

문의: 이강오 장로 (949)281-9530

◆ 정기 제직회 7월 18일(토) 헬스바 기도회 후 정기 제직회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제직회 참석 대상은 담임목사, 부목사, 상근전도사, 사역장로, 협동장로, 사역권사, 협동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및 부서장들로 구성됩니다.

◆ 큐티인 7월호 판매 QTin 7월호를 카페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말씀으로 풍성한 7월이 되시길 바랍니다.

문의: 김광영 장로 (949)233-0677

◆ 강단꽃 봉헌 예배실 강대상의 꽃을 봉헌하실 성도님께서 교회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교회 사무실 (949)854-4010

◆ 기도해주세요

- KCC 워싱턴 DC 단기선교 및 인턴 리더쉽 컨퍼런스가 7월 13(월)-16일(목)까지 있습니다.

- BYM 중등부 QARA 멕시코 단기선교가 7월 13일(월)-18일(토)까지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에 파송기도 합니다.

◆ 축하해주세요

오늘 3부 예배에 송진규/김다연 성도의 아들 송노엘(Noel)의 유아세례식이 있습니다.

◆ 위로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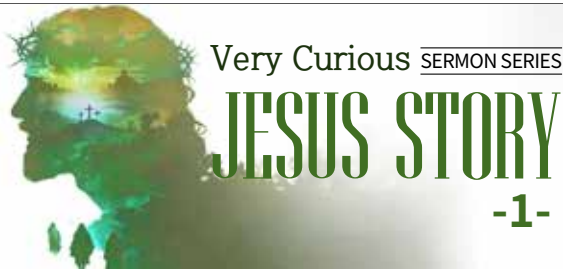
- 故 윤성식 집사님(이소영 권사의 부친, 이용준 집사의 장인)께서 7월 4일(토)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 故 김용환 님(김정훈 집사의 부친, 염인선 집사의 시부)께서 7월 10일(금)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Table with 3 columns: 교회학교 주중 모임 안내, 주중 예배 및 기도모임 안내, 베델뉴스 편집위원. Contains details for AWANA, Sparks, Truth & Training, VBS, and church news editors.

비전 주차장 3377 Michelson Drive, Irvine, CA 92612 *주차 시 (Employee Reserved Parking)은 피해서 주차하시길 부탁드립니다. ◆ 베델뉴스 원고파일은 bethelnews@bkc.org로 보내주세요.

베델/갈릴리수양관 31600 El Cariso Trail, Lake Elsinore, CA 92530 ◆ 수양관전화번호(예약문의) (949) 943-9697 ◆ E-MAIL bgrcenter@hotmail.com



The Stone Jar Is Born Again

(John 2:1–11)

1. How long have you been married? Do you have any interesting anecdotes from your respective weddings? Please share them.

2. What was the problem at the wedding feast in Cana? Have I, too, experienced a crisis where it felt like the feast was prematurely over? (V. 1-3)

3. What was the purpose of the stone jar? What is my empty stone jar now? (V. 6)

4. How did Jesus answer His mother Mary's request? Let's summarize its meaning in two ways. "Jesus said, '() , why do you involve me? () has not yet come.'" (V.4)
 - 1) Jesus is ()
 Eph 5:32
 Eph 5:24-25
 Rev 21:2
 - 2) Jesus is ()
 Isa 25:1, 6
 Matt 10:28

5. What was the difference between the servants and the guests? (V.9, Ref: Psalm 34 :7, Psalm 119:18)

Psalm 34:8 () that the Lord is good.

Psalm 119:18 Open my eyes that I may see () in your law.



English translations for
 worship services via
 Discord

■ Song in Response: Jesus spoke